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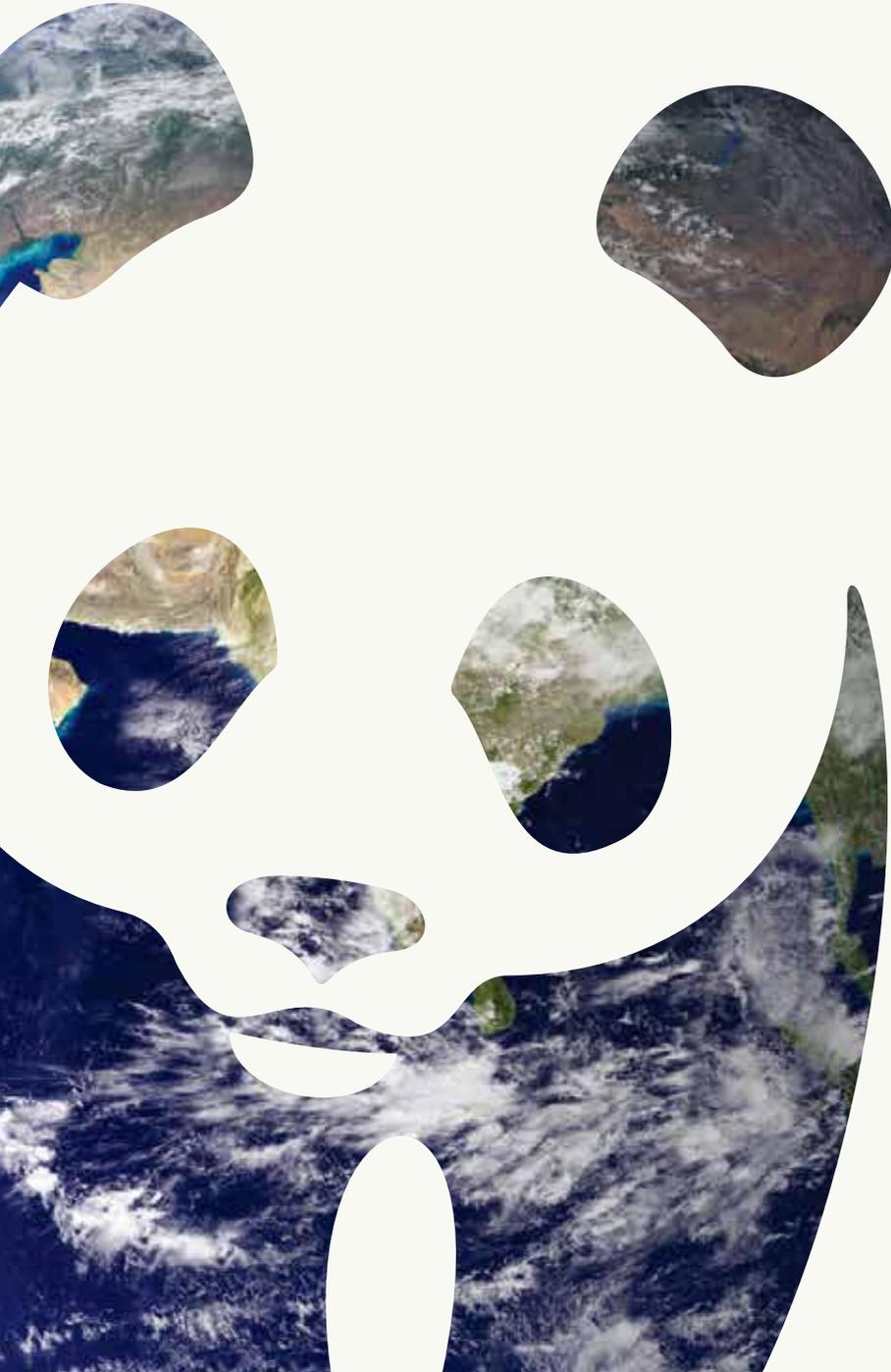


WWF

ANNUAL  
REVIEW

KR

2017



together possible™

##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스위스에 국제본부를 둔 세계 최대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에 500만명의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WWF는 현재 기후·변화와 에너지, 해양, 산림, 담수, 식량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에서 종합적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본부는 2014년에 설립되어 두 가지 우선 분야 기후·에너지와 해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600+판다 전시 및 어스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끄기) 등 대중들이 자연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행인:** 윤세웅

**발행처:** WWF-Korea

**발행일:** 2017년 11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NASA

본 보고서 전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기구에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Text 2017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 목차

WWF-Korea 대표 인사말	4
WWF 기관소개	6
한국의 우선 보전 과제	8
OCEANS 해양	10
Climate&Energy 기후·에너지	14
대중과 소통을 위한 WWF 활동	18
보고서 및 책자	24
파트너십	26
WWF 전세계 주요 활동	28
2017년 회계 정보	30



이 보고서는 세계산림책임관리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받은 종이와 방식으로 인쇄되었습니다.

# MISSION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

WWF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더 나은 생산 방식과 소비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흐름을 주도하고 공정한 자원 관리체계를 운영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 WWF-Korea 대표 인사말

© WWF-Korea / Suk Joon Jang



2017년 한해 우리나라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큰 변화 속에서 WWF-Korea는 멈추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약하는 기업과 지역사회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 지역과 협력을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의 하나인 두루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철원군과 제휴를 하는 등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시민사회 혹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판다토크라는 강연 형식의 컨퍼런스도 시작했고 각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 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과 WWF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WWF-Korea에서 활동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의 하나는 대표적인 인류의 대재앙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파리 협약 등에 의해 이미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한국사회에도 미세먼지나 지나친 폭염이나 폭우 그리고 기후변화가 우리 먹거리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WWF-Korea는 대한민국의 청정 에너지 미래를 위한 2050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17년 8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에너지 비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화 이후 인류는 눈부시게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 성장과 발전은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과 안락함을 제공했지만 그만큼 자원의 고갈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동시에 던져 주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상 징후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껴왔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욱 그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제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자손들에게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와 기업, 지역공동체와 시민 사회, 그리고 학계와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협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WWF-Korea 대표 **윤세웅**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야생동물의 피난처가 되었다”

By 와이즈만  
(저널리스트인 와이즈만의 저서  
“인간없는 세상” 중에서)

군사시설의 보호와 안정성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DMZ는  
야생동물들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로 공생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었다.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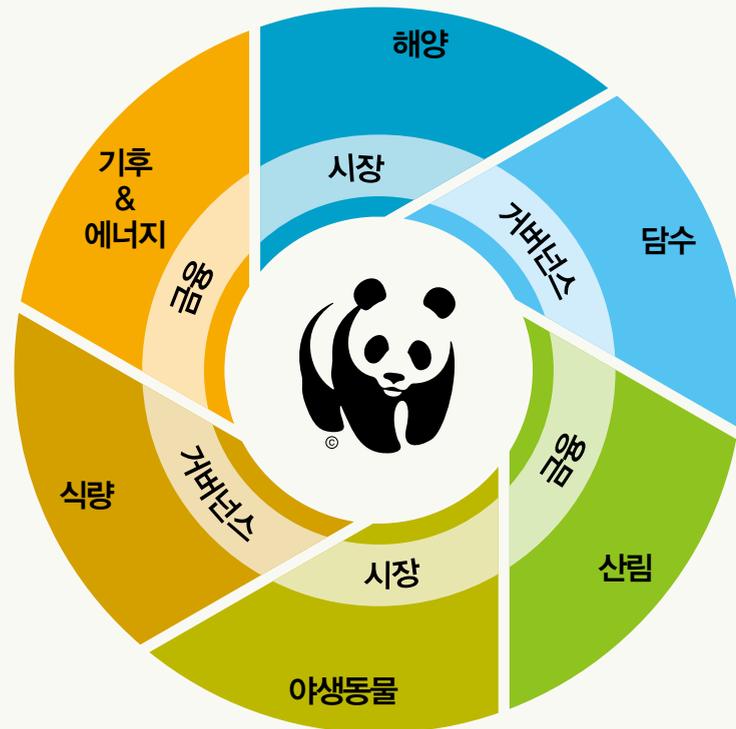
© Wang LiQiang / Shutterstock.com

#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을 소개합니다

WWF는 지난 57년간 인류와 자연의 조화를 위해 보전활동을 펼쳐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세계 최대 환경보전 기관이다.

1961년에 스위스 글랑에 설립된 WWF는 초기에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지구 전체, 즉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연보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금과 같은 자연보전 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17년 현재 100여 개국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이해관계자들과 자연보전 문제에 대해 인식 증진 활동을 하거나 의사결정 기관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WWF는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조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제협력기구의 참여를 통해 환경 관련 이슈들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자연보전 이슈들은 그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없이는 해결책을 찾기 힘든 문제들이다. WWF는 국제분부가 있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 100여 개국을 기반으로 국제적 협력과 지역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 WWF의 전략은 6개의 목표와 3개의 동력, 즉 3가지 영영의 활동분야를 포함한 9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 개편된 글로벌 전략은 중요한 환경보전 이슈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 WWF의 활동을 통합시켜 6개의 각 분야에서 하나의 큰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기초가 된다.



WWF 글로벌 목표

## 기후·에너지

기후변화에 회복력있는 저탄소 사회 구축



## 해양

생산적이고 회복력있는 해양생태계 도모와 이를 통한 인류의 생계수준 향상



## 야생동물

생물 개체 수 회복 및 종 보전



## 산림

산림 보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웰빙 증진 및 유지



## 담수

사람과 자연을 위한 담수 보전



##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마련



동력

## 시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



##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재원 증가



## 거버넌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정책 강화



# WWF-Korea 우선 보전 과제

WWF-Korea는 2014년 공식 출범 이후 해양과 기후·에너지 2개 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년도에 발간한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과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우선 보전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 해양 프로그램

대한민국은 지리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에 접하여 있어 수산업이 경제활동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시장에서 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16년 어업생산량 325만 7천톤, 어업생산금액 7조4257억원, 국민인당 수산물 소비량 연간 59.9kg)

또한 한국은 세계 25대 수산물 생산국 중 하나이자 세계 10대 주요 수산물 수입국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전 세계 참치 생산량의 7%에 해당하는 33만 1000톤을 생산하는 전 세계 5대 원양참치 조업국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어족자원의 남획과 혼획 등 과잉개발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개발로 연안습지가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WWF-Korea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건강한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다.



© William Bradberry / Shutterstock.com

##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후변화는 하나의 지구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가 당연한 위중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근간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어 낸 이면으로 세계 8위의 탄소 배출국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WWF-Korea는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활용으로의 전환 비중을 높이고, 과감한 목표를 통해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 Angela Rohde / Shutterstock.com

WWF-Korea는 회계 기준 2017년도 (2016년 7월~ 2017년6월)에 전년도보다 보전과제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실제 활동을 펼쳤으며 진행 성과도 있었다. 전년도에 발행하였던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과 <지구생명보고서 2016>에서 분석했던 인류 활동이 자연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두가지 우선과제 영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쳤다.



OCEANS  
해양

#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과 지속가능한 어업

## 1.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노력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비율을 영해의 10%로 확대하여 해양의 생태다양성을 복원하고 해양환경 건강을 복원하고자 하는 해양부문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목표 달성 방식을 논의한 바 있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제주도 내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자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첫 사업으로 제주도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에 걸친 와덴만 지역의 국제자연유산 지역을 보전 관리하고 있는 WWF 글로벌의 경험과 사례를 활용하여 황해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가적인 해양공원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WWF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계획을 준비하였다.



© WWF-Korea

##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협력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원양 및 연안 어업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충청남도과 전남 완도군의 어민과 관련 수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어업의 개념과 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훈련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일본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인증 선진 사례를 직접 보고 듣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수산업체와 이해 관계자들에 지속가능 어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증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복 수출 선도업체인 청산바다와 MOU를 맺고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들의 ASC인증 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 어업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인증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국내 참치 원양 어업 기업에 인식 증진 교육을 제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연근해와 원양어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고 어선과 수산물의 이력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 어장 개선 프로젝트(FIP), MSC 인증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WWF-Korea



**CLIMATE & ENERGY**  
**기후·에너지**

# 저탄소 미래를 향한 담대한 노력

파리 협약을 통해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 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고 우리나라도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의 2030년 감축 협약으로는 온도 상승폭을 협정대로 지켜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기후변화는 하나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다.

전 세계 주요 도시는 주요 동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업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으로 혼란이 없지 않지만 이미 미국 내 많은 기업과 정부 기구들에서는 견고하게 계획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들을 흔들림없이 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발전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재무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운영 등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WWF-Korea는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고 기후행동을 강화하고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변화 공약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다양한 지지활동을 통해 한국의 저탄소 미래를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WWF-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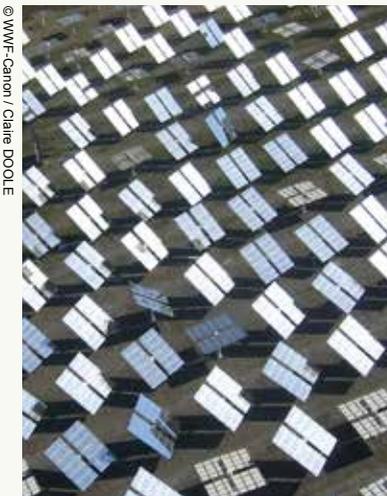
## 1. 청정 에너지 한국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

우리나라는 해수면의 상승과 기온과 수온의 뚜렷한 상승 현상을 직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에너지 환경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2050년도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전문가와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와 함께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의 결과물을 보고서와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하고 공론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 2. 과학적인 목표와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

파리 협약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목표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WWF는 과학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줄이기 위한 각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행해 나가기 위한 Science Based Target 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을 초대해 SBT 솔루션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과감하게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기후변화를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호 합의된 3개 기업과 SBT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기업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체험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진행중에 있는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SBT 솔루션을 통해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WWF-Canon / Claire BOOLE



© Global Warming Images / WWF-Canon



# 대중과 소통을 위한 WWF 활동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WWF-Korea는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은 대중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학계가 참여한 보고서 발간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고 보도자료의 배포와 미디어 활동, 그리고 SNS 활동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WWF가 치와 비전을 나누고 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자연보전의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어스아워 캠페인 2017

2007년 시드니에서 시작해 10주년을 맞이한 어스아워(지구촌 전등끄기)는 세계적으로 기후문제를 이해하는 인식의 기틀을 세웠다. 2017년 어스아워 캠페인을 통해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고 파리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고 호주에서는 이 캠페인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에서는 '어스아워 친구(Earth Hour Buddies)'라는 이름의 서포터즈가 숲과 바다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홍보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어스아워 캠페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등을 높이 달아 끄기 불편하게 만드니 오히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등끄기에 참여한다는 역발상에 착안하여, 스위치를 높이 달자는 엉뚱한 제안을 하는 캠페인 영상(The Dumb Proposal :바보같은 제안)을 제작하였고, 온라인에서만 백만 명 이상이 시청하며 어스아워로 참여를 이끌어냈다. 어스아워 웹사이트에서는 전국 각지의 참여자가 참여 약속을 하며 연대감을 형성하였음은 물론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캠페인 영상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카메오로 출연하고 샘 해밍턴이 재능기부로 나레이션을 맡았다. KT는 어스아워 공식후원사로서 전국 KT지사와 계열사가 어스아워에 동참하였으며 삼성전자, 후지제록스, 메리어트호텔그룹, 하얏트호텔그룹, 탐앤탐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과 서울, 부산, 통영, 창원, 광주 등 지방 정부는 지역 랜드마크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 WWF-Korea



© WWF-Korea

## 판다토크 1

### One Planet Living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생활습관)

판다토크는 테드(TED Talks)의 강연 방식으로 자연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연으로, 첫 번째 판다토크에서는 생태발자국과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생활습관(One Planet Living)을 소개하였다.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은 한국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소비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연구와 제안을 한 국내 최초 보고서로, 한국인의 생활방식으로 전 세계인이 살아간다면 지구 3.3개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나뿐인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다섯 명의 연사들이 자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하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생태발자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판다 토크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청중들이 생태발자국을 줄이는데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독려하였다.



© WWF-Korea



© Daebong Kim / WWF-Korea

## 판다토크 2

### Market Transformation Initiative (시장 변화 이니셔티브)

두번째 판다토크에서는 “시장 변화의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기업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엄청난 자원소비가 인하여 자연과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수억 명의 생계와 식량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핵심 원자재에 집중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자재 방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약 500개의 기업이 주요 원자재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변화를 통해 전체 시장을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표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과 시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를 선택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디젤 버스를 선택한 기업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동시에 대기오염 물질도 낮아지고 소음이 줄어들며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수익을 통해 가치가 높아진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True Value)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진정한 가치(True Value)를 추구하는 똑똑한 기업의 여러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토크가 진행되었다.



© WWF-Korea

### 판다토크 & 투어 교육 프로그램 시즌 1

미래의 자연보전 리더가 될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젝트, 판다토크 & 투어 프로그램은 2016년 10월에 첫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경상남도 거창 고등학교에서 약 2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퀴즈 및 세션을 가졌고 통영에 위치한 동원 고등학교에서도 8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과 생태발자국, 인구 증가와 동물 개체 수의 감소 동향, 지구 온난화 문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하나뿐인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 만들기’에 대해 설명하며 다양한 직군 및 자연보전 리더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WWF-Korea의 자연보전 활동과 자원봉사 기회 등을 공유했다.

### K2와 제휴를 통한 라이선싱과 브랜드 캠페인

WWF-Korea는 2017년 5월 K2와 협력하여 WWF와 K2 로고가 들어간 라이선싱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을 출시했다. 라이선싱 제품 출시에 앞서 현재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WWF 디렉터 니콜라스 콕스가 보전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Protection for All' 브랜드 캠페인을 상반기에 진행했다.

WWF는 이번 협력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보전 활동을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K2는 WWF의 라이선싱 제품에 100% 유기농 면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의류 생산뿐 아니라, WWF와 협력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K2

### DMZ의 생태보전을 위한 특별한 전시

WWF-Korea에서는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는 DMZ지역의 캠프그리브스에서 진행되는 'DMZ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전시 오프닝 행사에 참가하고, DMZ 지역의 소중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동참했다.

'DMZ캠프그리브스: 기억과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DMZ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다. WWF-Korea에서는 DMZ에 서식하는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을 확인하고 DMZ지역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DMZ 생태 보전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목표로 전시 기획 및 오프닝에 참여했다.



© WWF-Korea

###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만나다

호랑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이자, 동시에 민족의 영물이다. 2017년 봄, 제5회 한-러 어린이 호랑이 그리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아이들에게 호랑이에 대한 추억을 남기고 다시 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열렸고 한국과 러시아의 어린이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WWF-Korea는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 개체수를 늘리는 캠페인 중이다. 이번 한-러 어린이 호랑이 그리기 대회에 시상자로 참석하여 수상한 어린이들을 축하하고 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이 돌아올 이야기와 꿈을 나누었다.

### 여름밤의 어스아워,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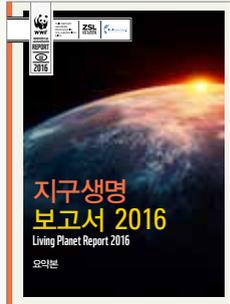
WWF-Korea는 '여름밤의 어스아워'라는 주제로 프리프과 과학동아천문대와 함께 빗공해 강연, 네트워킹 파티, 힐링 요가 클래스와 별 관측을 진행했다. 불필요한 빛을 밝히는데 자연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자리였다.

이번 이벤트는 전등을 끄고 별을 관측하며, 루프탑에서 요가를 즐기면서 내 몸의 힐링뿐 아니라 지구에게도 쉬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어스아워'의 주최기관인 WWF는 어스아워가 하루 이벤트로 1년에 1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 WWF-Korea

# 보고서 및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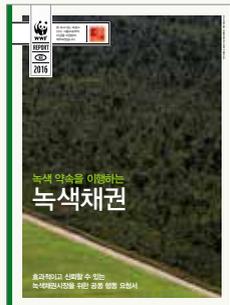


## 지구생명보고서 2016

2016년 10월 27일 공개한 <지구생명보고서 2016(Living Planet Report 2016)>에서 인류 활동으로 인해 50년 만에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67%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인류가 6차 대멸종(mass extinction)을 포함한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한다. 또한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식량과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가하는 인구의 복잡한 요구에 맞춰 식량생산이 늘어나면서 서식지 훼손 및 야생동물 남획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의 농업은 육지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물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구체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역시 대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막을 수 없다.

WWF-Korea 윤세웅 대표는 “<지구생명보고서 2016>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에도 해당되는 이슈들이다. 인류가 식량과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소비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한국에서도 조속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보고서를 통해 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해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미래세대가 살아갈 자연도 중시하는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 녹색약속을 이행하는 녹색채권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녹색채권은 2016년 6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녹색채권의 발행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각 국가 상황에 적합한 활성화 정책과 시장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 현황에 적합한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 편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특수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표준 절차와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친환경 세제 혜택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녹색금융이 한국 금융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발행자, 금융기관, 인증기관, 정부, 비정부기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WWF-Korea에서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녹색채권에 대한 핵심요소, 표준 절차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해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녹색채권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곧 한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을 발행을 기대해 본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증제도

WWF는 지난 몇 년간 주요 원자재에 대한 신뢰할만한 인증제도를 시장에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증제도”에서 MSC(세계해양책임관리회), ASC(세계양식책임관리회), FSC(세계산림책임관리회), RSPO(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등의 국제 인증제도를 소개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원자재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WWF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변화는 시장변화에서 시작되며, 그 변화의 중심에 기업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변화를 이끄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 책을 통하여 시장변화를 위한 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대한민국 2050 에너지전략 보고서

WWF-Korea에서는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2050 에너지 비전과 로드맵의 제안은 물론 나아가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국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 및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방법에 대한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100%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95%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클린에너지 미래(A Clean Energy Future)’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 등 공해로 인한 오염과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한다.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를 현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파트너십

WWF-Korea는 후원자들과 환경보전 활동가는 물론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부분, 시민사회는 물론 다양한 기업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회계연도 2017년에 WWF-Korea의 활동에 참여한 기업 및 협력기관 그리고 협력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수자원 확보 및 담수환경 보전활동

코카콜라는 전세계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양만큼을 담수 보전 활동을 통해 다시 깨끗한 물로 지구에 돌려주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코카콜라 한국지사는 WWF-Korea와 담수 보전활동의 방안을 협의하고 강원도 평창 오대산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물막이 공사와 정화시설 식재등을 통하여 늘린 환경 복원을 꾀하고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의 저장과 정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평창올림픽위원회 등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기관-시민사회-민간기업의 골든트라이앵글로 추진되는 건전한 보전활동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코카콜라와 WWF-Korea는 장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보전 파트너십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 코웨이와 함께 하는 보전활동

코웨이는 캄보디아 지역의 담수 이용환경을 제고하고자 우물 공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WWF-Korea는 설치된 우물을 유지보수하고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식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각 우물들의 현재 운영 상태를 실시하고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 곳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전활동을 일회성의 활동이 아닌 사후 운영까지 점검 보완하는 한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코리아 헤럴드와 HSBC가 지원하는 보전활동

헤럴드 그룹은 WWF-Korea에 매년 보전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 부문의 지속가능 어업과 기후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미래를 위한 보전 활동에 지원하였다. HSBC는 WWF-Korea의 판다토크 프로그램과 에너지보고서 개발을 지원했다.



### 삼성물산, 씨티은행, NH농협생명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삼성물산은 WWF-Korea에 임직원 및 자녀에 대한 환경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씨티그룹과 NH농협생명은 WWF-Korea에서 진행하는 자연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WWF-Korea

WWF-Korea는 회계연도 2017년에 기업들과 협력과 제휴를 통해 좀더 많은 대중과 가까워지고자 노력했고 그 활동을 지원해준 기업은 다음과 같다.



### 제일기획

WWF 공식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사인 제일기획은, WWF 대표 캠페인 어스아워 기획 및 진행을 함께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바보 같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게 전등을 끄는 어스아워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 닥터 브로너스

자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브랜드 닥터 브로너스는 한국에서 어스아워 공식 파트너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WWF와 함께 어스아워 온라인 이벤트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전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협력하고 있다.



### K2

'Protection for all'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WWF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기위한 다양한 보전 활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WWF 글로벌레이션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KT UCC

KT와 UCC는 지난 3년간 어스아워에 참여해 왔으며, 2016년에 이어 17년도에도 어스아워 캠페인의 공식 파트너사로 광화문 사육을 비롯 전국 KT와 UCC의 건물과 임직원들에게 어스아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 뉴킷

뉴킷은 WWF와 함께 북극곰을 비롯하여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한 제품 판매수익의 일부를 WWF에 기부하고 있다.



### 올가니카

인류 치유의 답이 자연에 있다는 믿음으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프리미엄 클린푸드 기업 올가니카는 WWF 주최 이벤트에 현물 지원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클린푸드의 가치를 알리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지구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WWF-Korea는 회계연도 2017년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자연보전활동과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서울특별시와 함께 하는 행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불고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어스아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국제기구 협력사업으로 WWF를 서울글로벌센터에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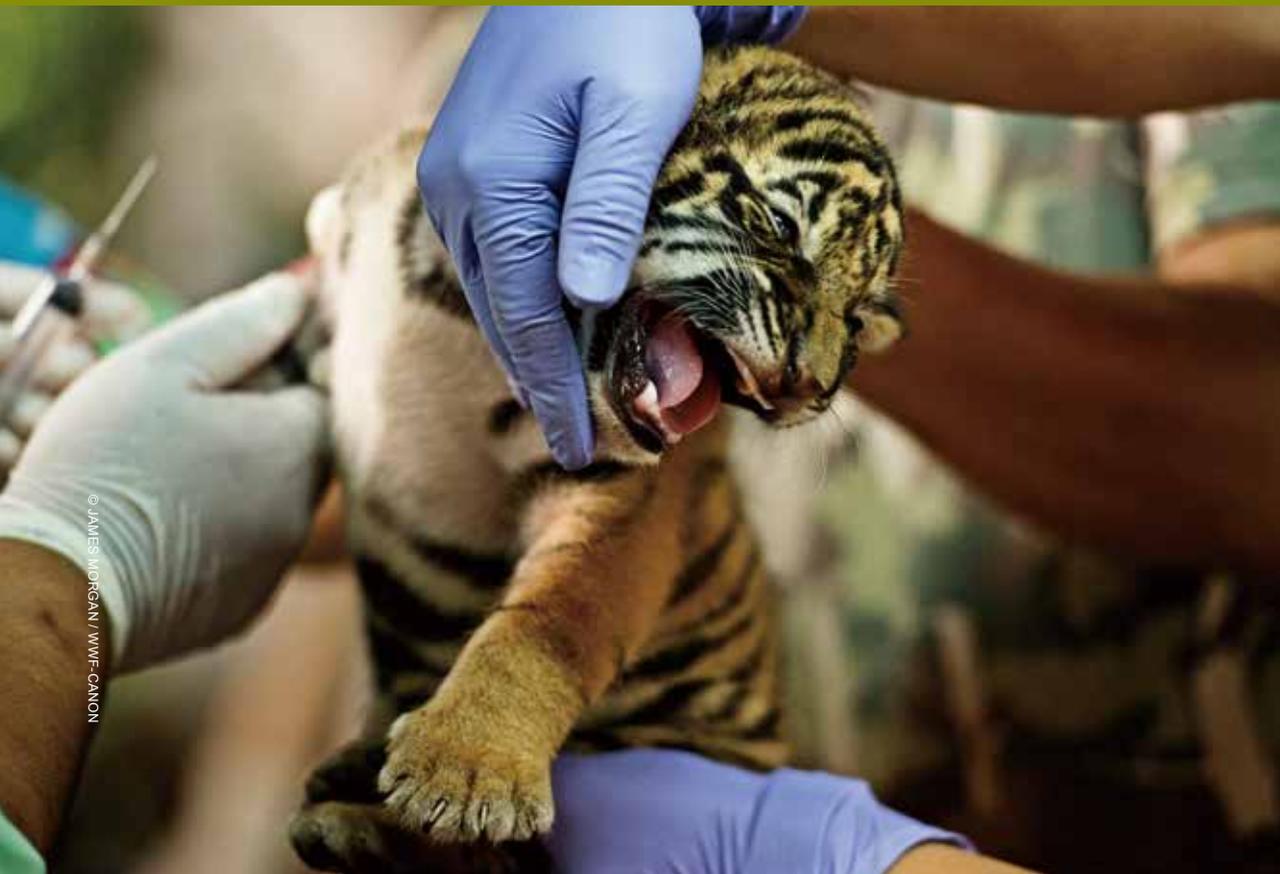


### 제주도와 함께 하는 보전활동

WCC에서 맺은 상호 협력 이행각서에 기반하여 그 첫번째 사업으로 제주에 UNESCO 카테고리2 센터-'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센터' 설립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WWF의 글로벌 전문가는 물론 UNESCO 전문가 등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립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 WWF 전세계 주요활동

WWF는 멸종위기동물의 개체수를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회계연도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글로벌 보전활동을 소개한다.



© JAMES MORGAN / WWF-CANON

## 2022년 호랑이 개체수 두 배로 늘리기

2010년 인년(호랑이의 해), WWF와 러시아, 미국 등 13개 호랑이 관개국, 호랑이 보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호랑이 보전을 위한 정상회담(2010 Tiger summit)을 개최하여, 다음 호랑이의 해인 2022년까지 전세계 야생호랑이 개체수를 두배로 늘리자는 목표를 만들었다.

야생호랑이는 2010년까지 지난 세기동안 약 97%가 멸종, 단 3,200마리만 현존하면서 심각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분류되었다. 야생호랑이의 멸종은 단순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의 의미를 넘어서, 전 야생 종의 멸종, 생태계 파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Tx(야생호랑이 개체수 2배 늘리기) 캠페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WWF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 기관들과 협업하여 아시아 레인저 연합을 조직하고, 야생호랑이 서식지를 보전지역으로 선정, 체계적인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체수 확보에 집중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인 밀렵 방지와 암시장 폐쇄 등의 직접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된 시점의 반을 활동해오면서, 야생호랑이는 3,890마리로 개체수 증가세를 보였고, 2013년 세계 최초 네팔에서 '밀렵 근절'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한국에서도 WWF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TV,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약속한 개체수 회복을 위해서 WWF의 활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 30마리만 남은 바키타돌고래 살리기

WWF는 '사라지는 바키타돌고래: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포유류 살리기 (Vanishing vaquita: Saving the world's most endangered marine mammal)' 보고서를 발표하고 캘리포니아만에 약 30마리 가량 남아있는 바키타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실시하였다. 세계 2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자망어업 전면 금지를 이끌어 냈다. 나아가 바키타돌고래의 생존에 치명적인 불법 자망그물 대신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어업 방식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에게 교육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WWF 멕시코 대표 호르헤 르카르즈(Jorge Rickards)는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바키타 돌고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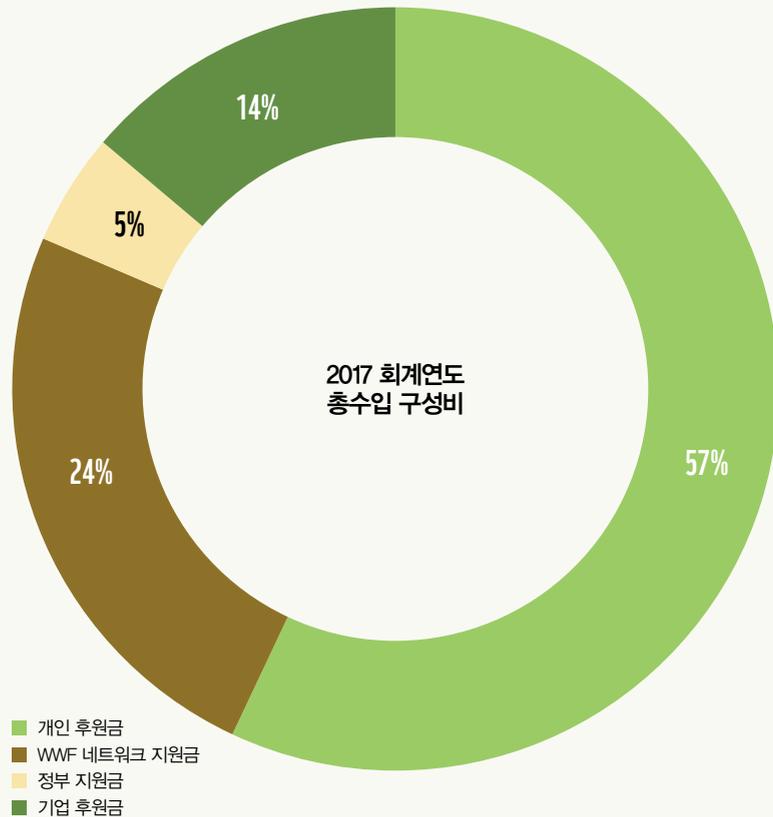
© Flip Nicklin / Minden Pictures / WWF

# 2017년 회계 정보

WWF-Korea의 2017 회계연도는 2016년 7월1일부터 시작되며 다음해인 2017년 6월30일에 종료된다.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한국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과정을 완료한 결과이다. 하단의 재무 정보와 그래프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포함한다. WWF-Korea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은 4번째 회계연도이다.

2017 회계연도는 보전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정기후원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WWF-Korea는 지난해보다 총수입이 75%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무안정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후원자의 증가는 물론 기업의 후원도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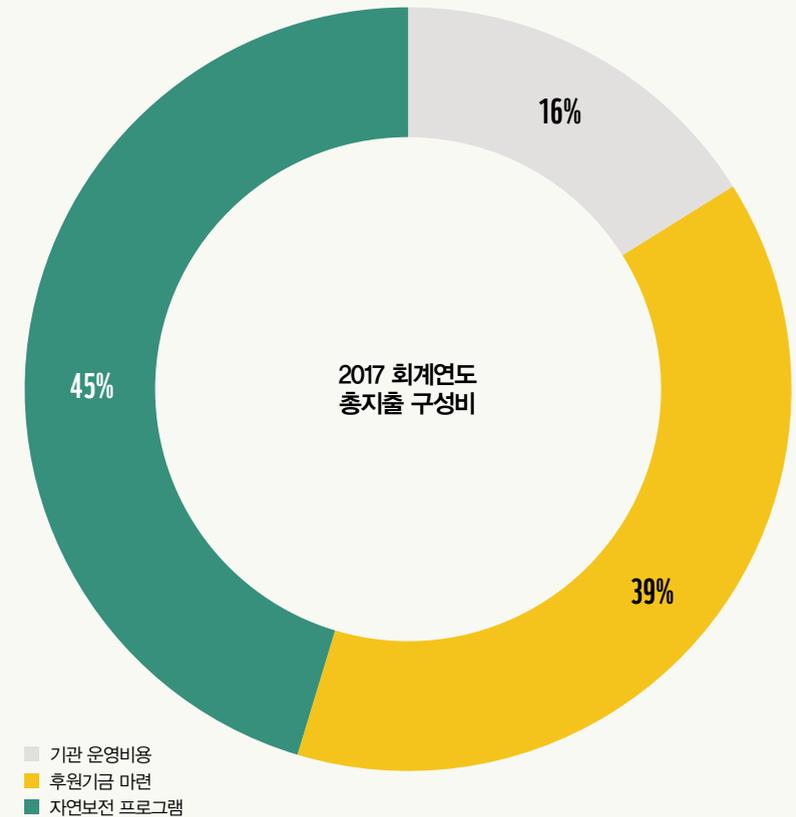
**수입** 2017 회계연도의 총수입은 3,791,345,024원으로 직전 회계연도(2,168,276,066원)와 비교해 약 75%가 늘어났다. 총수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약 57%로 개인후원자의 후원에 해당된다. 그 외에 WWF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비율이 24%이고 기업 후원금이 14% 그리고 남은 5% 정도가 정부 후원금에 해당한다.



**지출** 2017 회계연도 총지출은 3,341,750,192원으로 지난해(2,188,974,931원)에 비해 약 57%가 증가된 금액이다. 자연보전 프로그램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에 총지출의 45%를 사용했다. 후원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금마련 비용이 39%에 해당한다. 남은 16%가 운영 및 관리비용이다.

보전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율이 작년 대비 6%가 감소하였지만 이번 회계연도에 11억을 사용했고 이것은 지난해보다 4억4천9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WWF-Korea는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자와 기부자를 확보하고자 기금 마련 비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보전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점차 낮아질 것이다.

WWF-Korea는 지속적으로 보전프로그램을 늘리는데 비용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보전프로그램에 사용될 금액이 총지출의 80%가 될 때까지 앞으로 몇년간 더 노력할 계획이다.



# WWF-Korea 이사회

## 공동 이사장

양인모  
장 폴 페텍

## 이사

크리스토퍼 헤일즈 (싱가포르 WWF 회장)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대표이사)  
함중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손성환 (前 스웨덴 대사/기후변화 대사)

# WWF 글로벌 네트워크



2016년 11월 판다토크, WWF-Korea 직원, 자원봉사자, 발표자들이 함께 했다



© WWF-Korea

## \* 100개국, 80개의 지역 본부, 하나의 WWF

아르메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 아제르바이잔 - 벨기에 - 벨리즈 - 부탄 - 볼리비아 - 브라질 - 불가리아 - 캄보디아 - 카메룬 - 캐나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칠레 - 중국 - 콜롬비아 - 크로아티아 - 콩고민주공화국 - 덴마크 - 에콰도르 - 핀란드 - 피지 - 프랑스 - 프랑스령 기아나 - 가봉 - 조지아 - 독일 - 그리스 - 과테말라 - 가이아나 - 온두라스 - 홍콩 - 헝가리 - 인도 - 인도네시아 - 이탈리아 - 일본 - 케냐 - 대한민국 - 라오스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몽골 - 모잠비크 - 미얀마 - 나미비아 - 네팔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파키스탄 - 파나마 - 파푸아뉴기니 - 파라과이 - 페루 - 필리핀 - 폴란드 - 루마니아 - 러시아 - 싱가포르 - 솔로몬제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스페인 -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탄자니아 - 태국 - 튀니지 - 터키 - 우간다 - 아랍에미리트연합 - 영국 - 미국 - 베트남 - 잠비아 - 짐바브웨

## WWF 제휴기관

Fundación Vida Silvestre(아르헨티나) - Pasuales Dabas Fonds(라트비아) -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나이지리아)

# 숫자로 본 WWF

1961/2014

WWF 국제본부는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은 WWF-Korea가 설립된 해입니다.

+ 13,000

13,000명 이상이 WWF-Korea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00

WWF는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 개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2

WWF-Korea는 해양 보전과 기후-에너지  
이슈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자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wwfukorea.or.kr](http://wwfukorea.or.kr)

© 1986 판다 도형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